

言語使用에 비추어진 女性의 社會的 位置*

李 孟 成

序 言語는 人間의 생각을 나타내는 주된 表現方式이다. 그러나 言語는 단지 우리의 論理的 思考, 外界에 대한 考察과 判斷등을 나타내는 方便의 구실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集團世界의 여러 社會文化的 樣相과 特徵을 反映하며 外界의 事物 現象에 대한 우리의 心的 態度와 評價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特質을 지니는 言語는 具體的인 言語行爲로 具現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具體的으로 把握 分析 記述될 수 있는 言語現象을 통하여 社會文化的 樣相과 特徵을 미루어 알아보는 한편 言語使用者의 心的 態度를 把握하고 이를 통하여 言語使用者와 外界와의 社會文化的 關聯性을 究明할 수가 있을 것이다.

本研究는 위와 같은 社會言語學的 見解에 입각해서 주로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試圖의 일부를 이룬다. 즉 (1) 現代韓國語에 男女의 社會的 差異를 反映하는 言語上的 差異가 있는가? (2) 이러한 言語上的 差異가 나타내는 男女의 社會的 差異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며 그것은 男女의 性的 差別에 의한 社會的 不平等을 反映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研究는 男女의 性的 差異와 관련된 모든 言語上的 특징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分析하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우선 (1) 夫婦間의 말씨 (2) 男女의 社會的 差異를 反映하는 표현, (3) 「女性 다음」을 나타내는 표현과 「男性 다음」을 나타내는 표현의 세가지에 관하여 조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1. 夫婦間의 말씨

고향이 서울이나 경기도 또는 충청도인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夫婦 117쌍에게 設問紙를 배부하여 다음 3가지에 관하여 夫婦間의 말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¹⁾

* 本研究는 1975年度 産學協同財團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해서 진행된 것임.

(1) 配付된 設問紙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얘기하실 때 귀하는 귀하의 남편(또는 부인)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말을 쓰십니까?

2) 귀하가 귀하의 남편(또는 부인)을 직접 부르실때 쓰시는 호칭(呼稱)은 무엇입니까?

3a) 귀하가 귀하의 남편(또는 부인)에게 「식사하셨느냐」고 물어보실때 보통 사용하시는 표현은 다음 (1)-(9)중 어느 것입니까?

*((1)-(9) 省略함. 表 3의 3a 參照 할 것.)

3b) 귀하가 귀하의 남편(또는 부인)에게 「레레비를 키도록」 말씀하실때 보통 사용하시는 표현은 다음 (1)-(9)중 어느 것입니까?

*((1)-(9) 省略함. 表3의 3b 參照 할 것.)

3c) 귀하가 귀하의 남편(또는 부인)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하실때 보통 쓰시는 표현은 다음 (1)-(7)중 어느 것입니까?

*((1)-(7) 省略함. 表 3의 3c 參照 할 것.)

1.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의 間接指稱과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의 間接指稱
2.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의 直接呼稱과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의 直接呼稱
3.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에 사용되는 待遇話階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에 사용되는 待遇話階

1. 間接指稱

設問 1)에 대한 응답에 의해서 집계된 夫婦間的 間接指稱의 종류와 그 사용빈도는 表 1a~b와 같다. (2)

사용된 間接指稱을 類型別로 분류해보면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a)子女와의 관계를 통한 지칭, (b)家庭에서의 地位나 役割, 機能과 관련된 지칭, (c)話者와의 직접적인 관계 (즉 夫婦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칭, (d)代名詞를 사용한 지칭등으로 大分될 수 있다.

表 1a.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는 間接指稱

間接指稱의 類型	%	間 接 指 稱	%
(a) 子女와의 관계를 통한 指稱	64	{(우리) 애(기)} 아빠	28
		(우리 (집)) 아빠	12
		{(우리) 애(기)} 아버지	21
		(우리 (집)) 아버지	3
(b) 家庭에서의 地位, 役割 등에 입각한 指稱	22	(우리 (집)) 주인 {양반}	13
		{우리 집} 양반	4
		{사 바} 양반	
		바깥 {어른}	3
		밖깥 사람	1
집 사람	2		
(c) 話者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입각한 指稱	0		
(d) 代名詞的 指稱	9	(우리) 코이	9
(e) 기 타	3		

註: ① %는 女性應答者 117名에 대한 應答數의 百分率임

② x는 子女의 이름을 나타냄.

③ ()는 빠질수 있는 要素를 나타냄.

④ 「{(우리) 애(기)} 아빠」 등은 「(우리) 애(기) 아빠」와 「x 아빠」 등을 나타냄

(2) 夫婦의 年齡差와 年齡層에 따른 差異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表에 붙 이할 제시하지 않았다. 表 2와 表 3의 경우도 같다.

表 1b.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는 間接指稱

間接指稱의 類型	%	間 接 指 稱	%
(a) 子女와의 관계를 통한 指稱	17	{애} 엄마 x 어머니 에미	15 1 1
(b) 家庭에서의 地位, 役割 등에 입각한 指稱	66	(우리) 집사람 (우리집) 안사람 (우리) 안식구 우리집 식구 내자	46 9 7 1 2
(c) 話者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입각한 指稱	9	{{(우리)} {(제)} {(내)}} 처 (우리) 마누라 {{(우리집)} {(제)}} 아내 와이프	3 3 2 1
(d) 代名詞的 指稱	0		
(e) 기 타	9*		

註: ① %는 男性 應答者 117名에 대한 應答數의 百分率임

② 表 1a의 註 ②-④ 참조.

* 無應答 5%를 포함.

表 1a~b를 비교해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子女와의 관계를 통한 지칭이 많이 쓰이고 (64%) 家庭에서의 地位를 나타내는 지칭은 비교적 적게 (22%) 사용되는데 비해,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와 거이 정반대로 子女와의 관계를 통한 지칭이 비교적 적게 (17%) 사용되고 오히려 家庭에서의 地位를 나타내는 지칭이 많이 (66%)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指稱類型 (b)를 비교하여보면 남편에 대한 지칭에는 주로 家長의 地位를 나타내는 표현 (「주인」, 「주인양반」, 「주인어른」, 「우리집 양반」등)이나 家庭밖에서 社會的 活動을 하는 役割을 나타내는 표현 (「바깥 양반」, 「바깥 어른」, 「바깥 분」 등)이 사용되어 있고 아울러 남편에 대한 尊待의 표현 (「양반」, 「어른」, 「분」등)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아내에 대한 지칭에는 家族의 一員으로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役割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표현 (「집사람」, 「안사람」, 「안식구」등)이 사용되어 있으며 남편에 대한 경우와 같은 尊待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指稱類型 (c)는 남편이나 아내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칭인데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는 경우에만 어느 정도 (9%) 사용되고 있을 뿐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3)

이에 반해서 代名詞的 指稱인 類型 (d)는 아내가 남편을 가리킬 때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을 뿐 남편이 아내를 가리킬 때에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칭은 夫婦가 다 같이 사용하기를 피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2) 간접적인 표현중 家庭에서의 地位나 役割과 관련된 지칭에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갖는 心的態도와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갖는 心的態度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즉 아내는 남편에 대해 그를 家長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르는 尊待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남편은 아내를 家庭이라는 小社會 속에서 집안 일을 보살피고 꾸러가는 극히 제한된 役割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경우와 같은 尊待를 나타내는 일은 없다. 이는 곧 남편은 아내를 일종의 補助者 또는 內助者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찰은 우리의 意識構造속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일종의 階層的인 관계로 파악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3) 指稱類型 (a)와 (b)의 사용빈도를 비교해보면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a)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b)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i) 남편을 가리키는 指稱類型 (b)는 남편이 家族의 「長」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바 第三者에게 남편에 대해 언급할 때에 家長의 地位를 내세워 나타내는 것은 對話中에 자기의 것을 너무 높이 내세우는 것을 삼가하려는 일반적인 對話者 心理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類型(a)는 남편을 家族의 「長」으로서가 아니라 子女의 「아버지」로서 표현하는 것으로 훨씬 더 對話者 心理에 어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아내를 가리키는 指稱類型 (b)는 「長」의 뜻이나 尊待의 뜻이 포함돼 있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 대한 補助者로서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對話者 心理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類型 (a)도 마찬가지로 주된 활동을 家庭밖에서 하는 남편이 家庭을 꾸러나가는 아내를 자기의 補助者로서 類型 (b)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우며 구태여 子女를 통한 간접적 표현인 (a)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사용빈도가 낮기는 하나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 正反對의 양상을 보여주는 유형 (c)와 (d)에 대해서 살펴 보면,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 자기와 남편과의

(3)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는 間接指稱으로 類型(c)를 사용한 것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우리 남편」 등과 같은 표현이 친한 사이의 사람과 얘기할 때에는 어느 정도 사용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마도 應答者는 친한 친구와의 對話의 상황은 생각치 않고 일반적인 상황만을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類型(c)의 應答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철저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 (a), (b)가 다 간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유형 (d)는 더욱 더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이에 반해 남편은 아내에 비해서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형 (c)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표현인 (a), (b), (d) 중에서는 가장 간접성이 약한 (b)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간접성이 가장 강한 (d)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直接呼稱

表 2a.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의 直接呼稱

直接呼稱의 類型	%	直接呼稱	%
直接的인 呼稱	86	여보	80
		{ 여보세요 이(것)봐요 여봐요 나즘봐요 }	6
子女와의 關係를 통한 呼稱	8	(x) 아빠 x 아버지	4 4
기 타	6		

註: %는 女性應答者 117名에 대한 應答數의 百分率임.

表 2b.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의 直接呼稱

直接呼稱의 類型	%	直接呼稱	%
直接的인 呼稱	90	여보	81
		{ 여봐요 나봐요 여보게 이봐 <이름> }	9
子女와의 關係를 통한 呼稱	7	(x) 엄마(야) <아이들 이름>	6 1
기 타	3		

註: %는 男性應答者 117名에 대한 應答數의 百分率임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은 表 2a~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양상이 극히 유사하다. 부부 사이에 사용되는 직접호칭으로서 「여보」가 압도적으로 많아 부부의 경우 다같이 80% 이상의 사용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호칭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핀 간접호칭의 경우와 같은 부부간의 계층적인 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서로의 관계를 간

(4) 「그이」의 原義는 三人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指稱이다.

접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아내 쪽에 더 농후하게 나타났던 현상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직접호칭에 있어서는 부부 상호간의 관계가 극히 대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待遇話階의 差異

실문 3a~c는 부부간에서 사용되는 待遇表現에 어떠한 계층적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3a에 제시된 9개의 의문문은 「진지」:「밥」, 「잡수시」:「먹」, 또는 동사 의문 어미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되는 문장이다. 3b에 제시된 문장은 명령문으로 「시」의 有無, 또는 동사 명령 어미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되는 문장이다. 또 3c에 제시된 문장은 서술문으로 대명사 「저」:「나」의 대립이나 동사 서술 어미의 차이로 구별되는 문장들이다.

실문 3에 사용된 문장의 명사, 대명사, 동사의 대립은 話者が 聽者에 대해서 지니는 존

表 3. 夫婦間의 待遇話階

話 者		아 내 %	남 편 %
待 遇 話 階	關 聯 形 態		
3a	(1) 진지 잡수셨습니까?	2	0
	(2) " " " 어요?	68	2
	(3) " " " 우?	13	3
	(4) " " " 오?	5	1
	(5) 밥 먹었어요?	9	16
	(6) " " "우?	0	54
	(7) " " "오?	2	8
	(8) " " "어?	1	15
	(9) " " "나?	0	1
3b	(1) 텔레비 좀 켜보십시오.	1	0
	(2) " " "보세요.	53	3
	(3) " " "보시우.	4	1
	(4) " " "보시오.	2	4
	(5) " " "봐요.	35	40
	(6) " " "보우.	1	12
	(7) " " "보오.	3	21
	(8) " " "봐.	1	18
	(9) " " "봐라.	0	0
3c	(1)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2	0
	(2) " " " " 어요.	54	0
	(3) 나 " " " 어요.	38	5
	(4) " " " " 우.	3	12
	(5) " " " " 오.	3	56
	(6) " " " " 어.	0	26
	(7) " " " " 다.	0	0

註: %는 應答者 117名에 대한 應答數의 百分率임 (20% 이상은 꼬딕체로 표시함)

대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이고 동사어미의 차이도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문에서 제시된 문장은 (1)이 聽者에 대한 존대의 정도가 가장 높고 번호가 커질수록 그 정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5)

설문 3에 대한 응답은 表 3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사용하는 待遇話階와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하는 待遇話階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3a~c의 경우 다같이 높은 話階 (2)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남편은 아내에 대해 훨씬 낮은 話階 (3a는 (6), 3b는 (5), 3c는 (4))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6) 일반적으로 待遇話階의 差異는 話者 聽者間의 계층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 사용되는 待遇話階의 차이는 곧 부부간의 관계에 上下의 계층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3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설문 3a~c에 대한 응답을 부부간의 年齡差 또는 年齡層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부부간의 待遇話階의 差異는 年齡差의 정도나 年齡層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話階의 差異가 나타내 주는 부부간의 계층적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자체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사용되는 間接指稱, 直接呼稱, 待遇話階의 선택 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이들은 直接呼稱의 경우만을 除外하고는 부부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階層關係意識이 존재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2. 男女의 差異를 反映하는 표현

남녀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남녀의 相對的 地位, 權利, 價値, 社會的 機能, 特性 등에 관련된 표현들을 수집하여 아래에 예시하였다. (7)

A. (1) 家長, 主人, 主人어른 : 主婦, 안식구, 家屬, 眷屬

妻子를 먹여 살리다

(2) (X)선생님, X氏, 社長님, X長官 : X夫人, 師母님, X선생님 師母님, 社長 師母님, X長官 夫人; X未亡人

(5) 이들 문장의 차이가 단순히 존대의 정도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나 필이상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존대의 정도차와 이들 문장의 차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李孟成(1975)을 참조 할 것. 존대 이외의 다른 요소를 아울러 고찰한 것으로는 Hwang(1975)를 참조할 것. 동사 종결어미 「우」는 주로 서울, 경기 등 환경된 지방에서만 쓰이는 형태로 알려져 있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 지방 출신이므로 이 형태를 설문 속에 넣었다.

(6) 夫婦間의 말씨는 對話의 狀況 (즉 第三者의 存在 與否, 두 사람의 心理狀態等)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表3에 제시된 응답은 특별히 對話의 狀況을 밝히지 않은 설문에 대한 응답이므로 夫婦가 단둘이만 있고 또 心理的으로 각별히 가까움을 느끼는 상태에서의 話階의 선택을 나타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表에 나타난 것보다 待遇話階의 차이가 상당히 좁혀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7) 제시된 자료중 어휘자료는 「국어 새사전」(국어국문학회 : 1958)에서 수집한 것이고 여타는 필자가 수시로 모아둔 것 중에서 뽑은 것이다.

(3) 夫唱婦隨, 女必從夫, 忠臣不仕二君 烈女不仕二夫, 시집에서 쫓겨나다, 시집가서 소박 맞다, 남편에게 소박 맞다,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 계집은 거느릴 타이다, 원 사내녀석이 계집 하나 거느릴 줄 모르고!

(4) 恐妻家, 嚴妻侍下

B. (1) 男女老少, 紳士淑女, 新郎新婦, 奴婢; 父母, 丈人 丈母, 兄弟姊妹, 오누이
丈夫, 大丈夫: 兒女子

이놈, 저놈, 그놈, 이녀석, 저녀석, 그녀석: 이년, 저년, 그년; 이놈아! : 이년아!

C. (1) 貞操(를 지키다), 守節(하다), 貞烈, 烈女, 烈婦, 不貞

계집질, 난봉, 난봉꾼: 서방질, 화냥질, 화냥년

(2) 本男便, 間夫, 셋서방, 군서방: 本室, 正室, 本夫人, 本妻, 妾, 小室

(3) 前男便: 前妻, 前夫人; 後妻, 後娶, 繼娶, 再娶

D. 獨子, 외아들: 無男獨女, 외딸

得男禮, 生男禮, 生男턱: 팬잔례; 生男祈禱

또 아들이야(참 좋겠네)!; 또 딸이야!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出家外人

E. (1) 바깥 主人, 바깥양반, 바깥 어른: 안 主人, 안 사람, 家庭婦人; 內助者,

土曜일은 家庭의 날

계집애가 공부는 해 될 하나? 살림이나 잘 살면 되지!

계집애가 좀 얌전히 굴지 않고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돌아다니냐!

出世, 英雄: 賢母良妻

忠臣, 烈士: 烈女, 烈婦

(2) 王: 女王; 女人天下; 神: 女神

암탉이 울던 집안이 망한다.

作家: 女流作家, 閨秀作家; 文人: 女流詩人; 詩人: 女流詩人; 畫家: 女流畫家; 飛行士: 女流飛行士; 事務員: 女事務員; 社長: 女社長

(3) 妓生, 官妓, 接待婦, 美姬接待; 酒母; 賈淫, 賈春, 娼妓, 娼女, 賈春婦, 賈淫婦, 갈보; 花柳界, 花柳界女性, 遊興街女性; 絕世佳人, 天下一色; 脚線美; 날선한 몸매; 愛嬌, 嬌態, 妖艷

위에 열거한 표현중에서 우선 夫婦間의 相對的地位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A項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夫婦間의 間接指稱에서는 남편이 가족의 「長」이며 아내는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된다는 계층적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1의 응답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家長; 家屬, 眷屬등의 표현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들이다. 남편이 「妻子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들리지만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상케 하는데 이것은 부부의 지위와 책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아내」의 종속적 지위는 제3자가 부부를 가리키는 呼稱이나 指稱에도 나타난다. 남편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主人어른」, 「(X)先生님」 「社長님」, 「X氏」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아내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師母님」, 「夫人」 등과 같이 누구의 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앞에 「先生님」, 「사장님」 「X氏」 등의 표현을 붙여서 「X先生님 師母님」 「X氏夫人」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편을 잃은 부인을 우리는 「X氏 未亡人」이라고 불러 사망한 남편의 아내임을 밝히지만 아내를 잃은 남편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일은 없다. 또 아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지칭으로 사용되는 「主婦」라는 말도 사전(이희승 : 1963)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집안의 주인의 아내」로 풀이되어 있다.

아내의 종속적 지위나 심지어는 예속적 지위는 「女必從夫」, 「烈女不仕二夫」, 「남편에게 소박했다」 등 A(3)에 제시된 표현에도 뚜렷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남편의 優位性으로 볼 때 A(4)의 「恐妻家」, 「嚴妻侍下」 등의 표현이 보통 諷刺的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이해될 수가 있다.

다음으로 男女의 일반적인 상대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표현들(B)을 살펴보면, 남자를 나타내는 말과 여자를 나타내는 말이 같이 쓰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例 : 男女老少, 新郎新婦). 한국어에 있어서 언어표현의 사용순서와 被指示體의 상대적지위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일상적인 言語行爲를 관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서두에 참석자에 언급하는 경우에 그 순서를 보면 언급되는 참석자의 지위의 높낮이와 언급의 순서가 일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長官과 道知事와 郡守가 참석한 모임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이들에게 언급할 때에는 「××長官님, ××知事님, ××郡守님」의 순서로 말을 하고 이에 어긋나는 순서로 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 스포츠 중계때에 나오는 「지금부터 延大對高大, 高大對延大의 決勝戰 實況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와 같이 對戰팀의 이름을 순서를 바꿔서 되풀이 하는 까닭은 바로 언급의 순서가 상대적 지위의 높낮이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상대적 지위를 지닌 두개 이상의 指示體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그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언급의 순서를 달리하는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는데⁽⁸⁾ 위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남녀에 관한 표현이 같이 사용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남자에 대한 표현이 먼저 쓰인다는 것은 언어사용자의 의식 속에 男性 優位의 관념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서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紳士淑女」⁽⁹⁾라는 표현을 보면 영어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으로 여자에 대한 표현이 먼저 사용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紳士」가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남자에 대한 언급이 先行하는 일반적 유형에 맞추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8) 언급의 순서는 지위의 높낮이뿐 아니라 일반적인 測定値와 관련된 표현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例 : 「上下」, 「高低」, 「多少」 등). 또 이러한 言語行爲上의 특징은 앉는 자리를 정하는 경우, 자리에 앉는 순서, 건물이나 방에 들어갈 때의 순서, 會食을 할 때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순서등에 나타나는 非言語行爲上의 특징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9) 아마도 이는 日本語를 통해서 들어왔다고도 짐작되는데 日本語에도 한국어에서의 유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兒女子」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여자를 함께 묶어 일컫는 말로 국어 사전(이희승: 1963)에 의하면 「여자의 人格과 금새를 낮추어 평가하여 쓰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함께 묶어 일컫는 말은 남자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丈夫」, 「大丈夫」와 같이 장성한 남자를 「兒女子」와 對應시켜서 일컫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놈」이나 「녀석」은 남자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고 「넌」은 여자를 낮추어 일컫는 말인데 前者는 때로는 윗사람이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이는 일이 있다. 또 「놈」이나 「녀석」은 여자를 일컫는 경우에도 쓰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놈」이나 「녀석」이 「넌」보다는 낮춤의 정도가 훨씬 덜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가리켜 말할 때 흔히 「아, 그놈이……」라고는 하지만 「아, 그년이……」라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년」이란 표현이 너무 被指示體를 낮추고 심지어는 상스러운 느낌마저 주는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또 여자아이를 꾸짖을 때 「이놈아!」하고 야단을 치는 경우와 「이년아!」하고 야단을 치는 경우에 상대 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도가 다른 것도 「넌」이라는 말의 낮춤의 정도가 더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자」의 낮춤말인 「놈」이나 「녀석」과 「여자」의 낮춤말인 「넌」의 낮춤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상대적인 지위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혼생활에서의 貞節, 外道 등과 관련되는 표현인 C項의 말들을 살펴보면 우선 C(1)과 같은 표현(「貞操」, 「守節」)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남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 표현들은 아내를 남편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수절 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것이 곧 婦德으로 간주되는 반면 남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道德律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C(1)에 예시된 것처럼 「계집질」하는 남자는 「난봉꾼」이라 일컫고 「서방질」하는 여자는 「화냥년」이라 일컫는데 「난봉꾼」과 「화냥년」의 語感에서 느껴지는 非道德性의 정도의 차이도 男女에 요구되는 이러한 道德律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한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아내와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면 그를 우리는 「妾」 또는 「小室」로 부르는데⁽¹⁰⁾ 女子의 경우는 혹 「바람」이 나는 일이 있어도 남편과의 다른 남자를 데리고 살 수는 없고 고작해야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사귀는 「셋서방」 또는 「閨夫」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本夫人」, 「本妻」하면 흔히 「小室」에 대한 「正室」을 의미하는 것이나 「本男便」하면 女子가 改嫁하기 이전의 남편(즉 「前男便」)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C(2) 참조).

C(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再婚한 남자가 얻은 아내는 「後妻」, 「後娶」등의 명칭으로 부르

(10) 李朝時代의 양반사회에서는 남자가 小室을 두고 사는 것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通念은 해방후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는데 再婚한 여자가 시집간 남편에 대해서는 이에 對應하는 명칭이 따로 없다. 이는 남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前後의 순서(또는 位階)가 아내에게 배겨지지만 여자가 재혼했을 때에는 여자를 중심으로 남편의 前後의 순서를 배기는 일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도 男性中心의 社會的 通念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D에 예시된 표현은 아들과 딸의 相對的 價値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딸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이 하나 뿐이면 「獨子」라고 하나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뿐인 경우에는 「獨子」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 「獨女」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이라는 뜻으로 「無男獨女」라는 표현이 쓰인다.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경우에 「無女獨子」라고는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부모들의 아들과 딸에 대한 가치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漢字語가 아닌 우리 말로 「외아들」과 「외딸」이 있으나 국어 대사전(이희승:1963)의 풀이를 보면 「외아들」은 「형제가 없이 단 하나만 있는 아들 독자」로 풀이되어 있어 딸의 유무에는 언급이 없는데 반해, 「외딸」의 경우에는 「① 아들없이 단 하나 뿐인 딸; 無男獨女; ② 여러 자식 가운데 딸로는 하나 뿐인 딸」이라고 되어 있어 第一義가 無男獨女の 뜻으로 되어 있어 아들이 없는 것에 언급하고 있다.

아들을 못 본 부모가 아들을 얻고자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生男祈禱」라고 하는 데 이에 對應하는 「生女祈禱」라는 말은 쓰이는 것 같지 않다. 또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한턱내는 일이 많은 데 이는 「得男禮」, 「生男禮」, 「得男턱」등으로 불리운다. 「得男禮」에 對應하는 표현으로 「팬잔禮」가 있는데 사전(이희승:1963)에 의하면 이는 「첫 딸 낳은 사람이 친구들에게 줄리어 한턱내는 일」로 되어 있어 自進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줄리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팬잔례」는 첫 딸을 낳았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한턱내라고 조르는 사람도 없고 한턱내는 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딸을 둘 이상 두게되는 것은 慶事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딸이 일단 결혼을 하면 「出家外人」이라고 규정지어 버리는 것이라 든가, 어지간히 창성한 딸을 여럿 둔 부모가 「말만한 딸만 여섯이니 한심스럽다」와 같은 말을 하는 일은 있어도 아들을 많이 둔 부모가 「아들만 여섯이니 한심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일은 좀처럼 없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 가정이나 사회가 얼마나 男兒優位의 通念을 지니고 있는가를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1)

다음 E項에 제시된 남녀의 社會的 機能내지는 役割에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 家庭의 長인 남편을 가리킬때에 우리는 흔히 「바깥主人」, 「바깥양반」, 「바깥어른」과 같

(11) 近者에 家族計劃 運動의 일환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標語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男兒優先의 社會的 通念을 修正하므로써 家族計劃 事業을 원활히 推進해 보려는 試圖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男兒選好의 경향에 대한 연구로는 Chung (1974)을 참조할 것.

은 표현을 쓰는데 이에 대해 아내를 가리킬 때에는 「안主人」, 「안사람」 등의 표현을 쓰고 기혼여성을 일반적으로 가리켜 말할 때에는 「家庭婦人」이라는 표현을 쓰는 일이 많다. 이러한 표현은 남자는 주된 활동 무대가 家庭밖에 있는데 비해 여자는 그 주된 활동 무대가 가정안에 한정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內外」란 말은 「夫婦」란 뜻의 말인데 「內」가 아내를 「外」가 남편을 가리키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동안 「土요일은 가정의 날」이라는 표어가 여기 저기 많이 나붙고 세상의 남편들이 토요일만이라도 일찍 가정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자는 캠페인이 벌여진 적이 있는 것도 남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밖의 사회에서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딸에게 「계집애가 공부해 뭘하나? 살림이나 잘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부모가 상당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는 女子란 그들의 활동 범위를 가정 안에 국한시켜야 하고 家庭外의 일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딸의 행실을 꾸짖는 어머니가 「계집애가 좀 얌전히 굴지 않고 그렇게 히히덕거리며 돌아다니냐!」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아직도 듣게 되는 것도 여자는 가정에만 파묻혀있고 바깥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 內向的이고 自制的인 생활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들의 경우에는 흔히 그가 「出世」하기를 바라고 일종의 「英雄」이 되기를 바라는 반면 딸의 경우에는 자라서 「賢母良妻」가 되기를 바란다. 남자의 경우 「賢父良夫」라는 말이 쓰이는 일이 없고 딸이 사회에 진출해서 「出世」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별로 없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남녀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뚜렷하게 우리의 인식 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남자에게 사용되는 「烈士」라는 말은 옳은 것을 위해서 節義를 굳게 지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자에게 사용되는 「烈女」라는 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에 대한 정성과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이 두 낱말의 뜻이 이와 같이 다른 것도 남녀의 社會的 位置와 階層의 關係를 살피므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E(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王」이 남자인 경우에는 각별히 「男」字를 붙여 「男王」이라 하지 않으나 「王」이 여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王」이라 하지않고 「女王」이라고 하여 「王」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가정을 거느리는 家長은 물론, 한 나라를 다스리는 王은 원칙적으로는 남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여자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예외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특별히 「女王」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가정이나 국가나 간에 한 사회의 통치자는 남성인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암답이 울면 집안이 (또는 나라가) 망한다」는 등의 속담을 낳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바깥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직업을 묘사하는 표현인

「女流作家」, 「女流飛行士」, 「女事務員」 등에 「女流」 또는 「女」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도 역시 이들 직업이 원칙적으로 남성의 專有物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이 아직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2)

일종의 직업을 나타내는 말로 女性만을 가리키거나 또는 女性이 主體가 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에는 E(3)의 「妓生」, 「接待婦」, 「賣春」, 「酒母」 등과 같이 男子를 感能的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과관련된 것들이 적지않이 있다. 이러한 직업이나 직업적 행위는 사회생활에 있어 주도권을 쥔 남성에게 여성이 봉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통념에 바탕을 두고 비로서 成立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脚線美」, 「날씬한 몸매」, 「嬌態」등의 표현이 여성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도 여자를 하나의 감각적 대상이나 향락의 대상으로 보고자하는 男性中心社會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과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남자대학생 31명과 여자대학생 12명, 도합 44명을 대상으로 「女性다움」(女性的인 특징—성품, 용모, 인상, 태도, 행동 등에 관한)을 나타내는 표현과 「男性다움」(남성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을 각각 10개정도 적어내도록 하여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366개와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340개를 수집하였다. 이들 표현을 대략 意味範疇別로 묶어서 전체 응답수의 5% 이상되는 것을 추려 表 4a~b에 제시하였다.

表4에 의하면 전체 응답수의 5% 이상되는 意味範疇의 표현은 「女性 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의 경우가 전체응답수의 60%,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의 경우가 그의 67%에 이른다.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의 성질을 살펴보면 容貌나 印象에 관련된 것이 表 4a에 제시된 60%의 표현의 반인 30%에 해당하고, 性品이나 態度, 行動에 관련된 표현이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의 성질을 살펴보면 表 4b에 제시된 67%중의 대부분, 즉 61%가 性品이나 態度, 行動에 관련된 표현이고 容貌나 印象과 관련된 표현은 불과 6%에 불과하다. 이는 「女性다움」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容貌나 印象등이 性品, 態度, 行動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 「男性다움」을 규정하는데에는 性品, 態度, 行動 등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容貌, 印象과 관련된 표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얼굴, 얼굴의 부분, 몸매 등의 아름다움이나 인상의 우아함과 청조함을 나타내는 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약한 비

(12) 「女大生」 「女職工」과 같이 女性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女性에 對比해서 男性에 언급하는 일이 많으므로 「男子大學生」, 「男子職工」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女性의 경우와 같이 「男大生」, 「男職工」처럼 職業名과 性表示가 밀접하게 붙어 굳어버린 듯한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하나로 굳어버린 듯한 표현으로서 남자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에는 「男學生」이 있는데 「男職工」등이 어색한 것과 비교해보면 흥미 있는 일이다.)

表 4a.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應答比率(%)		
	男性應答者	女性應答者	總應答者
A. 容貌, 印象에 관련된 표현			
1. 예쁘다, 귀엽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화사하다, 사랑스럽다, ……	11	15	12
2. 살결, 입술, 눈, 머리카락 등 얼굴과 몸의 부분이 곱다는 표현	6	5	6
3. 날씬하다, 뺨이 있다, ……	6	2	5
4. 청초하다, 청순하다, 순결하다 ……			
小計	32	26	30
B. 性品, 態度, 行動등에 관련된 표현			
1. 다소곳하다, 얇진하다, 수줍어하다, 경숙하다, 조용하다, 겸손하다, ……	9	13	10
2. 부드럽다, 포근하다, 자애롭다, 인자하다, 이해심 있다, ……	8	5	7
3. 상냥하다, ……	7	5	7
4. 발랄하다, 명랑하다, ……	7	2	6
小計	31	25	30
合計	63	51	60

註: 數字는 男性應答者에게서 얻은 應答 257개와 女性應答者에게서 얻은 應答 109개 도합 366개의 應答에 대한 百分率을 나타냄. 百分率이 5%未滿인 것은 수록하지 않음.

表 4b.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應答比率(%)		
	男性應答者	女性應答者	總應答者
A. 容貌, 印象에 관련된 표현			
1. 건장하다, 딱 벌어진 어깨, 구릿빛 얼굴, ……	6	6	6
小計	6	6	6
B. 性品, 態度, 行動등에 관련된 표현			
1. 호탕하다, 활달하다, 진취성, 박력, 용기, 과단성, ……	38	28	35
2. 의지력, 투지, ……	10	2	8
3. 책임감, 성실성, 소신, ……	6	13	8
4. 포용력, 대범하다, 관대하다, ……	11	9	10
小計	65	52	61
合計	71	58	67

註: 數字는 男性 應答者에게서 얻은 應答 246개와 女性 應答者에게서 얻은 應答 94개, 도합 340개의 應答에 대한 百分率을 나타냄. 百分率이 5%未滿인 것은 수록하지 않음.

중을 차지하는 容貌, 印象에 관련된 표현은 주로 健壯함을 나타내는 말로 성립되어 있다.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性品, 態度등에 관련된 말을 살펴보면 靜的이고 受動的인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다소곳하다」, 「얌전하다」, 「정숙하다」, 「수줍어하다」등)과 부드럽고 따스함을 나타내는 말(「부드럽다」, 「포근하다」, 「자애롭다」등)이 17%로 性品, 態度등에 관련된 표현(30%)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에 어느 정도 對立되는 뜻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발랄」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6%이고 의미상으로 보아 前者와 後者의 특성이 섞여 있다고 여겨지는 「상냥하다」는 뜻의 표현이 7%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월등하게 큰 비중(61%)을 차지하고 있는 性品, 態度등에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면 「호탕」, 「활달」, 「진취성」, 「박력」, 「용기」 등 外向的이고 積極的인 뜻을 지닌 말이 35%나 되며 그 다음으로 意志力이나 責任感, 誠實性등에 관한 표현이 16%, 包容力이나 大凡함을 나타내는 말이 10%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과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주로 아름다운 容貌나, 몸의 美, 또는 靜的이고 內向的이고 부드러우며 청순한 性品이나 印象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行動的이고 積極的이고 外向的이며 包容力있는 性品과 健壯하고 矍鑠한 印象을 나타내는 말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우리의 意識속에 박혀 있는 女性像과 男性像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반영해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表 4a~b에 의하면 응답의 내용이 응답자의 性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곧 男女가 지니는 女性像과 男性像의 차이가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言語表現에 나타난 이와 같은 女性像과 男性像의 차이는 물론 女性과 男性이 本質的으로 지니는 特性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으나 그것이 전적으로 男女의 本質的인 차이에만 起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女性과 男性이 相對的으로 차지하는 社會的 地位, 役割, 權利등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結語 위에서 우리는 한국어에 있어서의 세가지 言語現象 내지는 言衆의 反應(즉 (1) 夫婦간의 말씨, (2) 男女의 社會的 差異를 反映하는 표현, (3)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과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대 한국어에 男女의 社會的 差異를 反映하는 言語上의 差異가 상당히 뚜렷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差異는 男女사이에 존재하는 相對的 階層意識, 社會的 機能과 役割 또는 價値에 있어서의 差別 意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性的 差別에 의한 男女 不平等의 意識構造가 한국

社會에 아직도 상당히 강력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理解는 男女의 言語差에 대한 보다 廣範하고 綿密한 고찰을 거친 뒤에야 비로서 뚜렷해질 수 있는 것임으로 앞으로 話者로서의 男女의 言語差와 男女에 關한 言語表現의 差등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4)

(師範大學 英語科)

參 考 文 獻

국어국문학회편(1958). 국어 새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이희승 편(1963).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Chung, Bom Mo, Jae-Ho Cha and Sung-Jin Lee (1974). *Boy Preference and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Fishman, Joshua A. (1972). *The Sociology of Language*. Rowly, Mass.: Newbury House.

李孟成(1975). 韓國語 終結語尾와 對人關係要素의 相關關係에 關한 연구 (1). 人文科學 33, 34 合輯, 延世大學校.

Hwang, Juck-Ryoon(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koff, Robin(1974). *Woman's Place in Language*, *Language in Society*, Vol. 3, No. 1.

(13) 이러한 생각은 言語는 그 社會의 社會文化的 樣態와 言衆의 社會文化的 意識構造를 反映하는 것 이라는 社會言語學의 일반적인 見解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社會言語學의 이러한 見解에 대해서는 Fishman (1972: 155-171) 참조.

(14) 男女의 言語差에 關한 研究의 素材에 關해서는 Lakoff(1974: 45)등을 참고 할 것.